

타이거즈 팬들 전율케한 한국시리즈 그 순간

전남일보 선정 KS 5대 명승부

1982년 프로야구 원년 창단해 2년 만에 첫 우승을 거머쥔 해태타이거즈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내리 4연패를 달성하며 팬들을 열광케했다. 기아가 인수한 2001년 이후에도 2009년 10번째, 2017년 11번째 우승을 이루며 한국시리즈 '11전 전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타이거즈의 명승부를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1983년 한국시리즈 1차전 해태 7-4 MBC(10월15일·광주 무등야구장)

1982년 첫 해 김동엽 감독과 조창수 감독 대행 체제로 4위에 머무른 해태는 리그 참가 두 시즌 만인 1983년 김응용 감독 체제로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30승 1무 19패의 성적으로 전기리그 우승을 차지한 해태는 한국시리즈에서 후기리그 우승 팀인 MBC와 맞붙었다.

해태는 첫 한국시리즈 무대를 완벽히 호령했다. 1회말 1사 만루 기회에서 김종모의 2타점 적시 2루타와 김무중의 땅볼로 3-0으로 앞선 해태는 2회말 1득점, 4회말 2득점, 5회말 1득점을 추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선발 이상운이 9이닝 4실점으로 완투승을 챙기며 구단 사상 첫 한국시리즈 승리를 장식했다.

●1988년 한국시리즈 6차전 해태 4-1 빙그레(10월26일·서울 잠실야구장)

1986년과 1987년, 삼성을 꺾고 2연패를 이룬 해태는 1988년 한국시리즈에서 빙그레를 상대로 1-3차전을 모두 챙기며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4-5차전을 내리 내주며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해태는 6차전 5회초 2사 만루 기회에서 김준환의 2타점 적시타와 한대화의 적시타로 3-0으로 앞섰고, 8회초에는 김봉연의 적시 2루타로 추가 득점을 뽑으며 4-0으로 달아났다. 3차전 완봉승의 주인공이었던 문희수는 8회말 조양근에 만회포를 내렸으나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완투승으로 왕조를 완성했다.

●1993년 한국시리즈 7차전 해태 4-1 삼성(10월26일·서울 잠실야구장)

광주에서 1-2차전 1승 1패를 나눠가진 뒤 대구에서 3-4차전 1무 1패로 1승 1무 2패,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해태는 5-6차전에서 연승을 달리며 3승 1무 2패로 흐름을 뒤집은 뒤 7차전에 나섰다.

해태는 신인 이종범의 빠른 발을 활용, 대권 도전을 끝냈다. 이종범은 1회말 안타를 친 뒤

연도	상대팀	전적	MVP
1983	MBC청룡	4승 1무	김봉연
1986	삼성라이온즈	4승 1패	김정수
1987	삼성라이온즈	4승 무패	김준환
1988	빙그레이글스	4승 2패	문희수
1989	빙그레이글스	4승 1패	박철우
1991	빙그레이글스	4승 무패	장태근
1993	삼성라이온즈	4승 1무 2패	이종범
1996	현대유니콘스	4승 2패	이강철
1997	LG트윈스	4승 1패	이종범
2009	SK와이브스	4승 3패	나지완
2017	두산베어스	4승 1패	양현종

도루에 성공, 흥현우의 적시타에 홈을 밟으며 선취 득점을 올렸고 4회말 2사 1·2루에서는 적시타로 직접 추가 득점을 뽑았다. 또 4-1로 앞선 9회초 2사 1루에서 이만수의 땅볼을 직접 처리하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았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KIA 6-5 SK(10월24일·서울 잠실야구장)

정규시즌에서 81승 4무 48패(승률 0.609)를 거둔 KIA는 SK(80승 6무 47패·승률 0.602)와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시리즈 역시 6차전까지 3승 3패로 맞서며 팽팽한 흐름을 보였다.

KIA는 7차전 5회초까지 박정권에게만 3타점을 내준 뒤 5회말 안치홍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으나 6회초 김강민의 희생 플라이와 박재상의 적시타로 1-5까지 끌려갔다. 하지만 6회말 나지완의 투런포, 7회말 안치홍의 솔로포와 김원섭의 적시 2루타로 동점을 이뤘고 9회말 나지완이 좌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KIA에 첫 우승을 선물했다.

●2017년 한국시리즈 2차전 KIA 1-0 두산(10월26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정규시즌 최종전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KIA는 한국시리즈에 선착해 상대를 기다리며 체력을 비축했다. 하지만 1차전에서 두산에 털리며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 75.8%를 빼앗겼다. 24.2%의 가능성에서 2차전에 나선 KIA는 양현종의 역투로 분위기를 반전했다. 1988년 문희수, 1996년 이강철, 2009년 아킬리노 로페즈에 이어 타이거즈 역사상 네 번째 한국시리즈 완봉을 달성했고 8회말 1사 1·3루에서 런 다운에 걸린 김주찬이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로 4연승, V11의 출발을 이끌었다. **한규빈 기자**



해태타이거즈 이상운



해태타이거즈 문희수



해태타이거즈 이종범

‘타이거즈 레전드’ 이자

정희열 동원대 야구부 감독

한국시리즈 3차례 우승 전인 포수 KBO 첫 아버지가 같은 팀 1차 지명 선배·스승·아버지로서 격려 메시지 “아들, V12 확정 후 포수와 포옹하길”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에 11번 올라가서 모두 이긴 팀이다. 후배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들에게도 믿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해태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하며 세 차례 우승을 일궈낸 정희열 동원대 야구부 감독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격려 메시지다. 그는 KIA타이거즈 선수들의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삼성라이온즈와 맞대결로 펼쳐지는 이번 한국시리즈를 기다리고 있다.

정 감독은 1990시즌부터 1997시즌까지 해태의 안방을 책임진 뒤 삼성으로 적을 옮겨 1999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KIA가 해태를 인수한 뒤에는 전력분석원과 스카우트 팀장, 배터리 코치, 수석 코치, 퓨처스 감독 등을 두루 지내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정희열 동원대 야구부 감독(오른쪽)이 지난 2019년 9월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년 신인 선수 입단 환영식에서 아들인 정해영으로부터 프로 첫 유니폼을 전달받은 뒤 격려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정 감독은 전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승부이기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해태 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우승 보너스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절박함도 있었다”고 회상하면서도 “과학적으로는 질 확률도 있지만 11번을 올라가서 다 이겼으니까 올해 역시 선수들이 자신감 있을 거고 진다는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세진장군
승진지순례길 걷다**

다양한 기념품과 푸짐한 간식

출발시간
매주 오전 10시

EVENT 1 QR 사전접수 시 혜택
인수플리드스트랩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업, 산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여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플리드 스트랩을 해드세요!

EVENT 2 행사 당일 무료 증정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방법은? 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접이식 버킷햇 전원 증정!

EVENT 3 완주자들을 위한 간식 증정
결승점에 도착하시면 푸짐한 간식들을 드려요!
* 반드시 접수 락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